

도입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참된 기쁨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만족 대신 주님이 베푸시는 참된 은혜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2.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3.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in my Savior am happy and blest: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Chrous)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men

본문 요한복음 2:1-12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John 2:1-12

1 O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2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3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4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time has not yet come." 5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6 Nearby stood six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twenty to thirty gallons. 7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8 Then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banquet." They did so, 9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d come from, th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10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11 This,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Jesus performed in Cana of Galilee. He thus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12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brothers and his disciples.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본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한 결혼식에서 일어납니다. 즐겁게 진행되던 잔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신랑과 그 가족에게 큰 당혹감과 수치를 안겨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결국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의지하는 것들—성공, 인간관계, 인기, 성취, 돈, 심지어 우리의 꿈까지도—잠시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무언가가 바닥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잔치의 주인(Lord of the Feast)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연회장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신랑이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던 돌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없애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과 잔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안에 삶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심판의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동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 왔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를 실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단순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바닷날 때에도, 예수님은 결코 바닥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은 한 손님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궁허함을 충만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은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Jesus' first miracle happens at a wedding. The celebration is going well until suddenly the wine runs out. In that culture, this was more than an inconvenience. It would have brought embarrassment and shame to the family. But there is also a picture of life here. Eventually, the wine runs out. The things we depend on for happiness—success, relationships, popularity, achievement, money, even our dreams—may satisfy us for a while, but they cannot carry the full weight of our hearts. Eventually, something runs out. Jesus reveals Himself here as the true Lord of the Feast. The master of the banquet thought the bridegroom had provided the best wine, but it was actually Jesus. Jesus was quietly behind the scenes providing what no one else could provide. And notice where Jesus makes the wine: the stone jars used for ceremonial cleansing. That is not accidental. Jesus came to do more than improve our circumstances. He came to cleanse us from sin and remove our shame. When Mary tells Jesus that the wine is gone, Jesus responds: "My hour has not yet come." Throughout John's Gospel, Jesus' "hour" points toward the cross. In other words, while everyone else is thinking about the wedding, Jesus is already thinking about Calvary. He knows that to bring us the ultimate joy of God's kingdom, He will eventually have to suffer. Our life in Christ is joy. Jesus will take the cup of judgment so that we can receive the cup of blessing. He will experience the darkness of the cross so that we can enter the joy of His feast. That is the gospel. Christianity is not simply Jesus saying, "Try harder and behave better." It is Jesus saying, "I have come to give you what you could never provide for yourself." Maybe today some of your "wine" has run out. Something you thought would satisfy you is no longer satisfying you. Something you depended on has disappointed you. Bring your emptiness to Jesus. And then listen to Mary's simple instruction:** "Do whatever He tells you."** Trust Him. Follow Him. Obey Him. Because when everything else runs out, Jesus does not. He is not only the guest at the feast.** He is the Lord of the Feast—the One who turns our emptiness into fullness, our shame into grace, and ultimately our sorrow into joy.

1. 내 삶에서 의지하거나 기대했지만 결국 바닥나서 공허함을 느꼈던 '세상의 포도주'(성공, 인정, 관계, 물질 등)는 무엇이었나요?
What is the "wine of the world" (such as success, approval, relationships, or wealth) that you relied on for satisfaction, only to find it eventually ran empty?
2.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걸음은 무엇인가요?
In the face of an embarrassing crisis, the servants obeyed whatever Jesus told them; what is a step of obedience Jesus is asking you to take in your life right now?

우리의 빈 항아리를 가장 귀한 은혜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잔치의 주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praise and trust in the Lord who fills our empty jars with the finest wine of His overflowing grace. Help us to follow Your words daily with obedience, walking closely with the true Lord who turns our mourning into joy.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